

금리인상에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 ‘쑹’... 빗투 개미 주의보

신한·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규 매수분부터 이자율 인상

개인 신용거래용자잔고 감소세
주식 반대매매 규모 3년 새 2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금리가 올라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빗투(빚내서 투자) 개미’들의 이자율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거래 용자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지난 5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p) 추가 인상했다. 한은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 8월 이후 15년 만이다. 이후 2~3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해 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은 시중금리를 기본금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2022년 6월 2일 기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명	적용일자	기간별 금리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DB금융투자	2022년 5월 27일	5.4	6.4	7.4	8.2	9.3	9.7
KB증권	2022년 3월 1일	4.6	6.8	7.5	8.0	8.5	9.0
NH투자증권	2022년 3월 7일	4.7	6.1	7.5	8.5	8.7	8.7
대신증권	2022년 5월 6일	4.5	6.5	7.0	7.5	8.0	8.5
메리츠증권	2022년 5월 2일	5.8	6.8	7.5	8.2	8.4	8.8
미래에셋증권	2022년 4월 18일	4.8	6.9	7.4	7.9	8.4	8.9
삼성증권	2022년 3월 21일	4.9	7.3	7.8	8.2	8.9	9.3
신한금융투자	2022년 5월 26일	4.5	7.0	7.4	8.7	9.2	9.5
유안타증권	2022년 5월 23일	6.0	8.2	8.5	9.1	9.1	9.4
키움증권	2022년 5월 27일	7.5	8.5	9.0	9.0	9.0	9.5
하나금융투자	2021년 5월 4일	7.5	7.5	7.5	8.0	8.0	8.5

리로 삼고 회사별로 가산금리를 더해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책정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CD, CP 금리를 기본금리로 삼는데, 지난 5월 31일 기준 CD 91일물은 1.96%, CP 91일물은 2.14%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이 이날 신규 매수분부터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안타증권

의 경우 지난 5월 23일 이미 이자율을 올린 상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구간별로 0.25%p씩 인상한다. 7일 이하 4.75%, 8~15일 7.25%, 16~30일 7.65% 순이다. 단, 31~60일(8.70%), 71~90일(9.20%), 91일 이상(9.50%)는 현재 이자율을 유지한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올린다. 90일 이내 이자

율은 5.38~9.28%로,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9.71%를 적용한다. 또 메리츠증권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10%포인트 올려 이자율을 5.91~8.90%로 조정했다.

특히 91일 이상의 경우 금리가 10% 가까이 달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DB금융투자 9.71%, 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9.5%, 유안타증권 9.4%, 삼성증권 9.3% 등으로 국내 4대은행(K

B·신한·하나·우리)의 평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인 4.61%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빗투 개미들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기준 신용거래 용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21조6246억원으로 집계됐다. 빗투 잔고는 지난 5월 중순부터 2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9월 13일(25조6540억원) 대비 4조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매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상환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일평균 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반대매매 규모(79억원)의 두배 이상이 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현대건설,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분양

2개 블록 2994가구 규모 ‘대단지’
포항 북구,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적용 특화설계

현대건설은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환호공원 1·2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선보인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20개동, 총 2994가구(1블록 1590가구, 2블록 1404가구)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59㎡ 302가구 ▲84㎡ 994가구 ▲101㎡ 294가구다. 2블록은 ▲59㎡ 364가구 ▲84㎡ 747가구 ▲101㎡ 293가구다.

사업지가 위치한 포항시 북구는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만 있으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 사실 여부와 관계없다.

특히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3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을 적용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광역조감도. /현대건설

명품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판상형(일부세대)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드레스룸·헨트리·알파룸(일부세대) 등을 도입해 수납과 공간 활용성도 증대했다. 전 타입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현대건설의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도 유상으

선으로 제공되는데, 현대건설의 특허인 본 시스템은 HEPA 필터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제거 뿐만 아니라 광플라즈마를 이용한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및 세균 저감도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견본주택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E-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다. (054)231-1666 /김대환 기자 kdh@

현대건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최종 선정

현대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수소의 생산·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 그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자 2.5MW 규모의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 및 저장·운송이 가능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수전해 설비와 출하 및 전기인입 설비 등을 포함한 수소생산기지의 ▲기본·상세설계 ▲주요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담당한다.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소산업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수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친환경 미래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대신금융그룹

계열사 임원인사 단행

대신금융그룹이 계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신증권은 2일, 대신자산신탁 김송규 대표이사, 디에스한남 이득원 대표이사, 대신자산운용 진승욱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송규 대표는 본사 명동사옥, 나인원한남, 춘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개발한 부동산 전문가다.

대신증권 송종원 경영기획부장은 경영기획실장을 겸임한다.

/원관희 기자

글로벌세아, 쌍용건설 인수 나선다

ICD 측에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글로벌세아 그룹이 쌍용건설 인수에 나선다.

2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글로벌세아 그룹이 최근 쌍용건설 최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ICD) 측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세계 최대의 의류 제조 및 판매기업 세아상역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10개국에 현지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그룹 매출

약 4조250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쌍용건설이 보유한 약 7조원 규모의 양질의 수주잔고에 더해 글로벌 인지도와 시공 경험 및 기술력을 활용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세아 그룹과 ICD는 쌍용건설 발전을 위해 ICD 보유 지분 인수 금액보다 더 큰 유상증자를 실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7월 또는 8월말 주식매매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미래에셋증권, 업계 첫 개인연금랩 출시

전문가 지속 관리로 안정적 운용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개인연금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랩은 가입자의 개인연금 계좌를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문운용인력이 자산배분, 리밸런싱 등 시장상황에 맞게 최적의 대안을 찾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서비스다.

이 랩계약은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을 통해 시장전망을 분석해 최적 자산배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상품변경 및 비중 조절을 통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개인연금랩 가입자는 매분기 운용현황보고서 수령을 통해 운용정보에 대해 투명하고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랩은 개인연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한번의 가입만으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출시됐다.

미래에셋증권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누구든지 영업점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은 6월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최근 연금의 투자 문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연금랩은 증권사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자산배분 역량을 통해 고객의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